
호전되지 않는 발뒤꿈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이진우 · 김범수 · 김용상

42세 여자 환자로 6개월 전부터 지속된 오른쪽 발뒤꿈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통증은 걸을 때 뿐만 아니라 눕거나 쉴 때도 지속된다고 하였다. 문진 상 외상력은 없었으며, 초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내디딜 때 통증이 심해 개인 정형외과의원에서 족저근막염 진단 하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약간의 호전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내원 1개월 전부터 발을 땅에 내려놓지도 못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통증 부위에 수차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으나 증상 호전 없어 본원에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뒤꿈치 내측과 외측 부위에 종창과 압통이 있었고, 압통은 특히 내측 족저부에 심하였다. 단순 족부 방사선 사진에서 종골 족저부에 골극이 관찰되는 것 외에는 특이소견이 없었고, 혈액검사 결과 WBC 9600/ μL (77.6%), ESR 120 mm/hr, CRP 4.5 mg/dL이었다. 골수염을 배제하기 위해 시행한 전신골주사 검사 결과 종골 전체에 걸쳐 음영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